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6년 2월 26일(목)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소영 ☎880-4716 김지은 ☎880-4717
사진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미추홀구, (주)에치와이 경인지점과 고독사 예방 위한
‘건강음료 배달지원·안부 확인 사업’ 협약 체결**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5일 (주)에치와이 경인지점(지점장 김종범)과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지원·안부 확인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구의 ‘2026년 고독사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군 중장년 1인 가구 중 취약계층 231가구(동별 11가구)이다.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전담 프레스시 매니저가 주 2회(월 8회) 대상 가구를 방문해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핀다. 특히 음료가 1회 이상 방치되거나 가구 내 위기 상황(건강 이상 등)이 감지될 경우, 프레스시 매니저가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튼튼한 복지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홀로 남겨지는 이웃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